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우리가 두려워하는 하나님

성경: 욥기 23장 6-17절

Tag:

6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7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는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8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9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뵈을 수 없구나

10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11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12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13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14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15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16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17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욥23:6-17)

옴기는 문학적으로도 매우 뛰어난 책이다. 물론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다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옴기의 앞 부분은 옴을 시기하는 마귀가 하나님과 내기하는 부분이고, 뒷 부분은 하나님께서 직접 왜 의인이 고난당해야 하는지를 알 수 없다고 항의하기를 그치지 않는 옴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질문이 많은데, 과연 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면 나도 답을 하겠다고 하신다.

네가 과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헤아릴 수 있는지 많은 예를 들어 물으셨다.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옴40:8)

옴의 결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바로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옴42:3)

하나님은 옴에게 답을 하시지 않았다. 옴이 원하는 답을 주시지 않으셨다. 왜냐면 어차피 옴은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옴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나, 결코 그런 수준의 단순원리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다.

세상에는 인과응보를 초월한 일들이 많이 있다.

인과응보란 마치 기초 물리학이나 기초 천문학과 같다. 천동설이 의미없고, 지동설도 의미없다.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은 우주여행이나 양자물리학 수준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특수상대성이론이 나왔고, 그걸로도 부족하여 양자역학에 관한 이론이 나왔다. 과연 인류는 중국에는 우주의 신비를 설명해 낼 수 있을까?

물리학자 앨런 모옌은 하나님이 욥에게 한 질문들을 현대식으로 바꾼다면 그중 일부는 다음과 같을 것이라고 저술했다.

“내가 태초에 공간의 중심을 중성자로 채웠을 때 넌 어디에 있었느냐? 알고 있다면 말해보아라. 중성자의 붕괴는 전자와 양성자를 낳고 원소를 생성시키는데 그 중성자 붕괴의 반감기는 누가 정했느냐? 땅에 기초를 세운 방법이 이런 방법이었다고 생각하느냐? 물질은 가속도에 저항할 질량 에너지를 어디에서 얻느냐? 물질이 가속도에 저항하는 이유는 또 무엇이나? 말해보아라...”

욥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욥의 무수한 질문이 있는데, 하나님은 욥에게 더 많은 질문을 하시고, 욥은 유구무언이 된다. 알면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는데, 도무지 모르는 것에 관한 질문 투성이다. 그래서 욥은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너무하시는거 아닌가 싶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말해 줘도 이해할 수 없을텐데 설명해 볼까?...

알고,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우리는 초월적 존재가 아니고, 우리의 의가 곧 하나님의 의는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논리적 이해의 차원이 아닌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이 곧 사랑이다. 다른말로 표현한다면 4차원의 영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 또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지만, 다만 인간의 사랑 역시 그 기원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 또한 틀림 없는 사실이다.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있겠으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의 설명이라면, 솔직하게는 사랑이란 엄마의 품 속에서 엄마의

보살핌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젖어들 듯이 깨우쳐 가는 것이 아닐까? 인간이 부화시킨 새는 알을 품지 못한다. 이것을 누가 가르치거나 설명하려고 한들 가능하겠는가? 오직 스스로 경험하면서 체득될 뿐이다. 그러나 아무런 감각이 없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무자비한 사람이라도 사랑 받고 있다는 것은 인식할 수 있고, 스스로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달아 가게 된다.

왜 욱의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왜 욱에게는 이런 기가막힌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욱의 삶, 욱의 깨달음은 세 친구보다 낫다.

-세 친구들은 욱과 함께 울며 그를 위로하고, 그를 이해해 주어야 했다. 이해까지는 못할지라도 그를 비난하지는 말았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욱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였다. 왜냐면 그렇지 않고서야 욱이 당한 저주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이다.

-세 친구 입장에서는 욱이 빨리 죄를 깨닫고 회개 했으면 좋았다. 그래야, 하나님이 용서라도 하실 수 있고, 자신들도 그가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니 위로도 하고, 새출발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욱이 회개하지 않았다.

-세 친구들은 더욱 거세게 욱을 몰아세웠고, 욱은 기왕에 당하게 된 고난에 더하여 세 친구들이 주는 정신적 영적 형벌에 억울한 마음이 더해졌다.

-아마 욱도 지은죄가 생각났더라면 속 시원하게 울며 깊이 깊이 통탄히 여기며 회개라도 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도무지 자신이 회개할만한 회개거리를 찾을 수 없었다.

-젊었을 때 저지르는 사소한 죄악으로 이런 형벌이 내렸다고 한다

면 사소한 실수에 사형을 선고하는 격이니 이 또한 양형기준에 걸맞지 않다.

-옴은 완벽한 의인이며, 털끝만한 죄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아니다. 옴이 찾고 싶은 것은 이런 기가막힐 고난에 걸맞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것이다.

구원이란 사람을 세속에서 건져내는 것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차라리 사고로 죽임을 당한 옴의 열 자녀들이 구원받은 셈이다. 그들은 죽임을 당할만한 죄가 없이 죽었으니 천국에 있을 것이다.

구원이란 인과응보를 초월하는 것

옴의 세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단순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함.

구원에 대한 두가지의 명제는 언뜻 보면 불교의 해탈과 비슷한 듯하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해탈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고(부처는 모형), 기독교에서는 구원의 주체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자신이다.

가장 큰 핵심은 구원도 생명이라는 것.

- 생명이란 누군가로부터 받는 것.
- 내가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니다.
- 즉 내가 나를 구원할 수는 없는 것.

그래서 옴의 고난은 아무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 옴이 가장 고통스러워 한 것은 재앙이 아니라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하나님.

8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9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
이키시나 뵈을 수 없구나

-욥은 예언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참내 그가 땅 위에서
살 것이라 (욥19:25)

-그에게 특별한 계시가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매우 돈독하
였다. 그러나 고난이 닥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욥으로서는 가장 견디기 힘든 고난이 더해진 셈이다.

-이 고난은 세친구들의 괴롭힘보다 더했을 것이다.

10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10절은 욥의 간절한 소망이다.

-욥으로서는 죽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인데, 내가 이렇게 고난 중에도 하
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있으니, 죽음 이후에는 내가 순금 같
이 정결하게 되리라는 소망이 있었다.

-그러나 욥은 죽지 않고 큰 복을 받으며 오래 살았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다. 욥의 믿음은 이 땅에서도 구원이라
는 믿음이다.

-그러나 욥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배신하지 말라
는 희망의 메시지.

11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
치지 아니하였고

12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옴의 경건을 잘 설명하는 말씀이다.

-그가 얼마나 경건생활을 잘 하였는지, 모범적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이다.

13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14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옴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임을 알았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너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무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사랑을 멈추지 않으신다... 는 믿음이 옴에게 있었다.

15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옴이 하나님 앞에서 떠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면 그가 맘 상해하는 것이 무섭다. 하나님이 왜 맘 상해 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가 두려운 것이다. 그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면 그가 힘겨워 하는 것이 무섭다.

-사랑하면 그가 나와 대화하지 않는 것이 무섭다.

-그래서 옴이 하나님 앞에 더 두려워 떨고 있다.

-왜냐면 전에는 결코 이러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옴은 소리 높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고, 친구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16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17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우리로 읊의 두려움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자유주의 자본론

성경: 신명기 8장

Tag:

1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 이 사십 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5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6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7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8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9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캐는 것이라

10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11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와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2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13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중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15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16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17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18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19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20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신8:1-20)

자유주의 자본론;쌓인 돈+혁신기술+창조경영(*경영의 목적에 공익 개념 추가 필요)+노동+새로운 Need 창출(미디어)+건강한 정부+정치(이기적 욕심을 이타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정치)+금융+고등교육+기독교+가족중심사회.

자유주의 자본론의 혜택; 가난한 자들에게까지 주어지는 혜택, 많은 잉여 생산량, 소비가 미덕, 자본주의 개인의 등장(당당한 노동자), 우대받는 3D업 종사자.

특히 북한식 경제 개념의 특징은 자본주의를 적대시 함. 체제옹호를 위한 목적 때문에. 현재 북한식 경제개념에 물든 사람이 너무 많음. 현 정부가 철저하게 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 (경제적 폭망을 코로나로 감추는 형국-그나마 자유주의 자본론을 충실하게 따르는 삼성을 옥죄고 있음.)

자유주의 자본론의 그늘;경쟁의식, 양육강식, 1등기업, 잉여인력, 타락과 일탈, 넘쳐나는 기술, 선택받지 못한 기술들. 실패한 기술, 마케팅, 늘어나는 3차산업. 지식기반 사회. 도심화

-1등 시기하거나 따라쟁이 짓 그만하고 자기만의 일터를 꾸밀 것. 희생없이 미래 없다. 1등 집안 자식들 시기하지 말라.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반격; 공산주의는 군주제화 됨. 사회주의는 자유주의를 멍들게 함.

- 사회주의는 자유주의를 부도덕하게 바라봄 (올법중심주의의 꽃)
-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도덕하게 바라봄

자본론의 잘못된 인식;자본이란 단순히 쌓여있는 돈이 아님.

돈 자체가 객관적 경제적 총화.-이를 악용하지 말라. 뭐든지 악용될 경우 그 피해가 큰 법(원자탄처럼, 원자료가 답)

-돈 자체 보다 사업가의 혁신적 기술, 경영방식, 분배철학, 이 자본이라는 식재료를 가치있게 한다. (사실 이제 자본은 마이너스 금리 시대; 자본가는 위협에 투자한 댓가로 이익금을 나눠 가져감.) 노동자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조건으로 임금을 가져감.

-신명기 8장이 발전하여 자본론이 됨.

-막스의 자본론의 허점은 큰 돈과 그 돈에 대한 욕심과 그 돈을 권자의 횡포만 보았지, 그 돈의 긍정적 정체를 보지 않았다. 자본이 경제적 총화인 것을 보지 못했고, 오늘날 자본을 바라보는 자들도 마찬가지. 자본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라.

-자본 자체에는 죄가 없다.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

-기독교적 자본론이 필요한 시대가 됨.